

'12승 투수' 네일마저... KIA 대형 악재 터졌다



KIA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 24일 NC전에서 턱관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 제공)

NC전 타구에 맞아 턱관절 골절로 수술대...장기 결장 불가피 이의리·윤영철 등 KIA 선발진 잇단 붕괴 속 'V12' 최대 위기



우승결선을 눈앞에 두고 '호랑이 군단'이 날벼락을 맞았다.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25일 턱관절 골절로 고정 수술을 받았다. 정규시즌 22경기를 남겨두고 발생한 초대형 악재로, KIA는 네일 없이 우승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KIA는 지난 24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공수에서 맹활약한 박찬호를 앞세워 2-0 승리를 거뒀다. 6연승 중단 뒤 하루 만에 다시 영봉승을 기록하면서 우승 질주를 이어갔지만 경기장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날 6회말 뜨겁던 창원 NC 파크가 순간 침묵에 빠졌다. 5회까지 3피안타 3볼넷 1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펼쳤던 KIA 선발 네일이 1-0으로 앞선 6회말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첫 타자로 맷 데이비슨을 상대했다.

4구째 타격이 이뤄졌고, 공이 네일에게 향했다. 턱을 그대로 강타당한 네일은 얼굴을 감싸 쥐고

덕아웃으로 뛰어 들어갔고, 경기장에는 정적만 가득했다.

큰 부상을 예감한 이범호 감독은 복잡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팬들은 침묵했다. 타자 데이비슨도 큰 충격을 받아 대주자로 교체됐다.

KIA는 급히 광도규를 투입한 뒤 전상현-정해영으로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지키면서 2-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 승리로 네일은 12승에 성공했지만 더는 승수를 쌓을 수 없게 됐다.

네일은 올 시즌 실력과 인성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으면서 KIA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네일은 위력적인 스윙퍼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오르면서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줬다. '가을잔치'를 이끌 에이스로도 기대를 모았다.

선발진의 줄부상으로 마운드 위기가 많았던 만큼 네일의 존재는 더 든든했다.

KIA는 시즌 내내 '부상'으로 선발 고민을 했었다.

기대를 모았던 월 크로우에 이어 좌완 이의리가 나란히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전반기에 시즌을 조기 마감했고, 지난 7월 14일에는 윤영철이 엔트리에서 빠졌다. 윤영철은 척추 피로 골절 부상으로

결음을 멈췄고 현재 캐치볼을 하는 단계다.

크로우의 부상 대체 선수로 캄 알드레드를 선택했던 KIA는 이후 '빅리그 36승'에 빛나는 에릭 라우어를 불러들였다. 남은 선발 두 자리는 황동하와 김도현으로 채웠다.

하지만 네일 마저 큰 부상을 당하면서 KIA가 시즌 전 구상했던 선발진에서 양현종만 유일하게 남게 됐다.

이어진 선발진의 부상으로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KIA는 선발진 안정화 속 최근 불펜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마운드 싸움에 탄력을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라우어가 3경기 연속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일에 이어 불펜에서도 부상 이탈이 발생했다.

KIA는 지난 24일 최지민, 25일 장현식을 엔트리에 말소했다.

최지민은 내복사근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20일 재등장 이후 4일 만에 전역에서 이탈했다. '마당쇠' 역할을 해왔던 장현식도 요구리 내복사근 염증으로 엔트리에 빠졌다. 장현식은 큰 부상이 아니라 10일 뒤 다시 엔트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날 최지민과 이형범을 말소한 KIA는 사이드 암 임기영과 우완 김승현을 등록했다. 25일 네일과 장현식을 말소한 KIA는 추가 엔트리 등록은 하지 않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넓은 야구공에 비닐테이프 감아 던졌는데...

'일본고교야구 우승' 교토국제고 "공 선물해준 KIA에 감사"

교토국제고-KIA 인연 '눈길'

교토국제고의 고시에 우승으로 KIA 타이거즈가 동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에 구장에서 열린 2024 일본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교토부 대표 교토국제고가 도쿄부 대표 간도다이치고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고시엔'으로 유명한 이 대회는 한국야구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다. 3441개 팀이 지역 예선에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49개 학교만 본선에 진출했다.

우승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데다 중고교 학생을 모두 합한 학생이 160명에 불과한 소규모 한국계 학교가 만든 우승이라 더 진한 감동을 남겼다.

이번 결승에 앞서 '한국어 교가'도 화제가 됐다. 교토국제고의 전신은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다. 지난 2004년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교토국제고가 됐다.

고시엔을 중계하는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기 전 출전 학교 선수들이 교가를 부르는 장면을 교가 자막과 함께 방송에 내보낸다. 한국어 교가를 고시엔 구장에 울려 퍼지게 하면서 눈길을 끈 교토국제고는 KIA와의 인연까지 알려져 한국



야구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2월 KIA 퓨처스 선수단은 일본 고치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퓨처스 캠프를 찾은 KIA 심재학 단장은 재일동포로부터 교토국제고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들었다.

넓은 야구공에 비닐 테이프를 감아 재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KIA는 퓨처스 캠프가 끝난 뒤 훈련하면서 사용했던 공 중 상태가 좋은 공 1000개를 골라 교토국제고에 보냈다.

이에 교토국제고 박경수 교장은 지난 3월 KIA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 "부원들이 늦게까지

배팅 훈련을 하면서 비닐테이프가 붙은 넓은 야구공을 사용했다. 주신 야구공을 부원들 스스로 절차타마하는 도구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2021년 19년 만에 고시엔 첫 출전을 했고, 올해 봄 4번째 출전이 확정됐다. 고시엔에서 활약할 교토국제야구부의 멋진 모습 기대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교토국제고가 이번 대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면서 KIA는 최고의 답례 선물을 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0-40 오타니, 투수 겸업 잔결음

팔꿈치 수술 1년 만에 마운드 올라 공 던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미국프로야구(MLB)의 영원한 뉴스메이커다.

오타니는 극적인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역대 6번째 한 시즌 40홈런-40도루를 달성한 다음날인 25일 또 한 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한 이래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운드에서 서서 공을 던졌다.

오타니는 이날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감각을 조율했다.

이번 시즌에는 지명 타자로만 출전하는 오타니는 지난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MLB 서 울시리즈 후 미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투구 훈련을 시작했다.

캐치볼로 감각을 끌어올리던 오타니는 불펜의 마운드 판을 밟고 처음으로 공을 던지며 내년 투타 겸업 재개를 향해 잔결음을 읊었다.

오타니는 빅리그 통산 38승 19패, 평균자책점

3.01을 기록했다. 타자로는 통산 타율 0.277, 홈런 211개, 타점 529개, 도루 126개를 쌓았다.

특히 아시아 타자로는 최초로 40-40클럽에 가입한 올해 내셔널리그 홈런 1위, 타점 2위(92개), 타격 4위(타율 0.293)를 달려 유력한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꼽힌다.

오타니는 지난해까지 댄 아메리칸리그에서 2021년과 2023년 두 번 MVP를 받았다.

한편 오타니는 지난 24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9회말 2사 만루에서 나온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40-40'을 완성했다.

오타니의 40-40은 MLB 역대 6번째 기록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는 처음이다.

아울러 오타니는 올 시즌 개인 126경기(팀 129경기) 만에 40-40을 달성해 역대 최소 경기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06년 소리아노의 147경기(팀 148경기)였다.

/연합뉴스

손흥민 '흑평' 1경기만에 '호평'...시즌 1·2호골

토트넘 4-0 완승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새 시즌 개막 2경기 만에 1·2호 골을 폭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의 네 골 차 패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4-0으로 완파했다.

승격팀 레스터 시티와 지난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공 점유율 71%를 기록하고도 1-1 무승부에 그친 아쉬움을 네 골을 퍼붓는 화력으로 털어낸 것이다.

토트넘의 다득점을 이끈 선수는 주장이자 골잡이 손흥민이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합류한 중앙 공격수 도미니 솔라케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전방 자원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멀티 골로 대승에 앞장섰다.

경기 시작 14분 만에 나온 이브 비수마의 선제

골로 앞선 토트넘에 손흥민이 25분 추가 골을 안겼다. 성실한 전방 압박 끝에 나온 득점이었다.

에버턴의 베테랑 골키퍼 조던 픽퍼드에게 향한 수비진의 패스를 쫓아 손흥민이 부지런히 뛰었다.

패스를 받은 후 공이 예상보다 멀리 튀어 나가자 당황한 픽퍼드가 재빨리 처리하려 했으나 가속하던 손흥민이 더 빨랐다.

문전에서 공을 낚아챈 손흥민이 빈 골대로 침착하게 밀어 넣어 올 시즌 마수결이 득점을 신고했고, 전매특허인 '찰카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전반부터 2-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에도 실점 없이 2골을 몰아쳤다.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딩으로 3-0을 만들었다.

6분 후 또 한 번 손흥민의 빠른 발이 빛났다.

토트넘의 페널티지역에서 드와이트 맥닐의 침투 패스를 가로챈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공을 몰고 전진하자 손흥민도 상대 후방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10초 만에 문전까지 전진, 패스를 받아 픽퍼드와 1대1 상황을 맞은 손흥민은 날카로운 원발 슈팅으로 멀티 골과 4-0 대승을 완성했다.

이날 손흥민은 3차례 슈팅을 모두 유효슈팅으로 작성하는 등 간판 골잡이다운 실력을 발휘하며 원어 대신 스트라이커 자리를 맡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레스터 시티와 개막전 볼 터치 실수를 보이는 등 정교하지 못한 플레이로 일부 현지 매체로부터 흑평만은 손흥민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특유의 빠른 발과 골 결정력을 한껏 뽐냈다.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의 영광도 손흥민에게 돌아갔다. 지난 시즌 17골을 터트린 손흥민은 올 시즌 2경기 만에 2골을 추가하며 '9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달성도 기대해 봤다.

더불어 EPL 통산 121·122호 골을 신고해 이 부문 역대 21위로 올라섰다. 공동 19위 라힘 스틸링(첼시), 드와이트 요크(은퇴·이상 123골)와 격차도 1골로 줄었다.

/연합뉴스